

<세션2 - 글로벌 ESG 동향과 동남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전략>

김종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팀장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위기가 맞물리며 세계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의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ESG 경영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진공은 우선,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효율화와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친환경 기술 도입을 지원하며,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후공시·공급망실사 대응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ESG 공시 및 실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EU 등 해외시장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업화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기술의 상용화와 녹색산업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중진공은 단순한 정책금융기관을 넘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내재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반의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다.